Japan Weekly Digest

2010. 3. 8 ~ 3. 14

급주의 이슈

- 온난화대책기본법 각료회의 통과
- 미쉐린 타이어 등 외국기업 일본에서 잇따라 철수
- 미래 성장 동력분야에 최대 규모로 집중 지원

□ 일본 정재계 소식

- 경단련, 정치헌금 기부를 위한 평가제도 폐지
- 하토야마 총리, 내각 개편 부인
- 재무성, 1월 경상수지 발표, 12개월 연속 흑자
- 하토야마 총리, 도요타자동차사장과 면담

□ 경제산업성 및 기업 동향

- 경산성, 인도에서 일본브랜드 강화 사업 추진
- 소니, 도시바 등 전자업체, 아프리카시장 본격 진출
- 도요타. 전자제어시스템 공개실험 실시

□ 일본 관련 보고서 리뷰

• 일본산업의 현상과 과제, 경제산업성

□ 파트너를 찾습니다

- [한국의 미술품과 전통공예품] 톱아트
- [(자동차용)사출성형금형] 미시마코산
- [바이오 관련 벤처기업]



緪**한일경제협회**

Korea-Japan Economic Association

- ※ 자료제공: (재)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일본지식정보센터
- ※ 본 자료는 협회 홈페이지(http://www.kje.or.kr)에서 PDF파일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사오며, 본자료를 이메일로 받기를 희망하시는 회원께서는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Tel.02-3014-9888)

□ 금주의 이슈

ㅇ 온난화대책기본법 각료회의 통과, 90년 대비 25%삭감 목표

- 일본정부는 12일, 내각회의에서 지구온난화대책기본법을 통과. 온실가 스를 2020년까지 1990년 대비 25% 삭감시키는 중기목표를 제시하고, 원자력 이용 관련 시책도 추진한다고 발표
 - · 온난화 관련 법안을 이번 국회에서 통과시킬 목표로 센고쿠 국가전략 상, 오자와 환경상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로드맵을 작성
 - · 온실가스 삭감 목표를 90년 대비 2050년까지 80% 삭감하는 장기목 표도 담고 있으며, 온난화대책세(환경세)는 2011년부터 도입 예정

ㅇ 미쉐린 타이어 등 외국기업들 일본에서 잇따라 철수

- 일본경제신문은 10일, 일본에 투자한 외국기업들이 일본에서 생산과 판매를 중단하고 철수가 잇따르고 있다고 보도
 - · 프랑스 미쉐린 타이어는 7월부터 일본 생산을 중단 예정, 현대자동차 도 승용차 판매를 중지, 캐나다 연료전지회사인 베러드 파워시스템즈 도 철수
 - · 외국자본이 투자처를 일본에서 아시아 등의 신흥국으로 시프트하고 있는 것이 요인
 - * 기타 : 영국 푸르덴셜, 프랑스 까르푸, 이태리 베르사체 등

ㅇ 日, 미래 성장 동력분야 최대 규모로 집중 지원

- 일본 종합과학기술회의(의장 : 하토야마 총리)는 9일, 1000억 엔을 지원하는 30개의 미래 성장 동력분야를 확정했다고 발표
 - · 과제당 19억 엔에서 50억 엔(약 650억 원)까지 지원하고, 이와는 별 개로 청년 과학자들에게 지원하는 프로그램에 500억 엔의 예산을 추가 배정
 - · 과제당 지원기간은 최대 4년, 1인당 연구비는 50억 엔으로 과거 전례 가 없던 최대 규모로 연구비를 지원

연구자	연구비	연구 테마
야마나카 신야(교토대)	50억엔	만능세포(iPS)를 이용한 재생의료기술
도노무라 신야(히타치제작소)	50억엔	세계 최고 성능의 전자현미경 개발
요코야마 나오키(후지쯔)	45억8300만엔	집적회로를 통한 에너지 절감 시스템
나카스카 신이치(도쿄대)	41억 500만엔	방위 및 방재에 활용할 초소형 위성개발
고이케 야스리로(게이오대)	40억2600만엔	고성능 광 섬유질 등 개발

□ 일본 정재계 소식

ㅇ 경단련, 정치헌금 기부를 위한 평가제도 폐지

- 경단련은 회장단회의에서 2004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자민·민주 양당에 대한 정책 평가 제도를 폐지한다고 발표
 - · 경단련 회원기업들은 정책평가를 기준으로 정치헌금을 결정하였으나, 이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향후에는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판단하여 헌 금을 하게 됨
 - · 미타라이 회장은 정치헌금 평가 제도를 폐지한 이유에 대해「정당에 대한 정책평가가 경직되어 있고 시대 변화에도 맞지 않는다」고 언급

ㅇ 하토야마 총리. 내각 개편 부인

- 하토야마 총리는 여론조사에서 내각지지율이 계속 하락하고 있는 것에 대해, 「국민 여러분의 비판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이를 타개할 대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였으나 내각 개편에 대해서는 부인
 - · 총리는 내각 개편에 관한 질문에 대해 현재 시점에서는 개각의사가 없다고 발언하고, 지지율 회복을 위해 국민과의 약속은 지키겠다고 강조

ㅇ 재무성, 1월 경상수지 발표, 12개월 연속 흑자 유지

- 재무성이 8일, 발표한 1월 국제수지 속보에 의하면 경상수지는 8,998 억 엔 흑자로 12개월 연속 흑자 기조를 유지
 - · 금년 1월 경상수지는 과거 최대 폭으로 증가하였는데, 아시아지역 수 출 증가와 서비스 수지 적자 폭이 축소된 것이 요인

ㅇ 하토야마 총리, 도요타자동차 사장과 면담

- 하토야마 총리는 8일, 도요타 사장과 총리 관저에서 면담
 - ·대규모 리콜로 美 의회 청문회 출석결과와 향후 품질 확보 대책 등에 대해 도요타 사장으로부터 직접 보고를 받았음
 - · 총리는「자동차 문제는 신뢰성·안전성이 가장 중요하다. 신뢰성 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해 달라」라고 주문

□ 경제산업성 및 기업 동향

ㅇ 경산성, 인도에서 일본브랜드 강화 사업 추진

- 일본 경산성은 3월, 12일부터 15일까지(4일간) 인도에서 일본브랜드 전시회「Feel Japan Style in India」를 개최한다고 발표
 - · 경산성은 이벤트를 통해 인도에서 일본 제품, 라이프스타일 등에 관한 수용성을 조사하고「JAPAN 브랜드」가 인도 소비 시장에서 인지도 가 확산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계획
 - · 일본 제품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전시장에서는 일 본제품에 대한 브랜드조사도 실시 예정
 - * 참가기업 : INAX, 시세이도, 도시바, 도요타, 닛산, 닛신식품, 파나 소닉. 라이온 등

ㅇ 소니, 도시바 등 일본 전자업체 아프리카시장 본격 진출

- 일본 전자회사들이 아프리카시장 개척을 위해 본격적으로 사업을 전개 하기 시작했다고 일본경제신문이 보도
 - ·소니는 2010년에 전문판매점을 증설, 도시바도 이집트에서 액정TV 생 산을 검토
 - · 일본 전자업체는 아프리카시장이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BRICs)에 이어지는 신흥국 유망시장이라고 판단하고, 수익기반을 강화시키는 것이 목표
 - · 일본은 브랜드나 제품 신뢰성에서는 우위를 확보하고 있으나, 현지 시장에서 통할 수 있는 제품 개발과 가격을 제공할 수 있을 지가 과 제로 지적

ㅇ 도요타, 전자제어시스템에 대해 공개적으로 실험 실시

- 도요타는 8일,「급가속의 원인으로 지적 되고 있는 엔진의 전자 스로 틀 제어 시스템의 결함」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국에서 공개실험을 실시했다고 발표
 - · 실험 결과, 전자제어에는 문제가 없었고, 안전성에 대해서는 확신하고 있다고 발표, 남 일리노이 대학교수가 주장하는 도요타 전자제어 시스템의 결함에 대해서 부정
 - ·실험 2시간 후 급가속 사고가 재발하여 美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되는 굴욕을 겪었으며, 미국 정부가 직접 실험을 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음

□ 일본 관련 보고서 리뷰

'일본 산업의 현상과 과제', 경제산업성 (2010. 3월10일)

ㅇ 문제 제기

- 일본 산업이 처한 위기상황의 심각성을 고려, **'향후 일본이 무엇으로** 먹고 살아가야 하고 고용을 확대시켜 나갈 것인지'에 대한 검토
 - * 왜 일본은 기술이나 품질에서 이기고 있으면서 사업과 이익에서는 지고 있는가?

ㅇ 일본산업의 현상

- 세계에서 일본경제 위상이 하락
 - * 1인당 GDP : 00년 3위 → 08년 23위, IMD세계경쟁력 : 90년 1위 → 08년 22위
- 시장의 중심이 선진국에서 신흥국으로 이동
- 저축률은 선진국에서 최하위 수준. 소비 성향을 향상시키기 어려움
- 지방경제 상황이 악화

ㅇ 일본산업의 문제점

1. 산업구조 전체의 문제

- 소득 확대를 글로벌 4업종에 의존, 수출의존도가 낮음, 일본기업이 자 국시장에서 차지하는 기업 수가 많다는 구조적 문제가 상존
 - * 글로벌 4업종(자동차, 전기, 철강, 일반기계)이 경상이익(01-07년) 증가액 중 36%를 차지

2. 기업 비즈니스 모델 문제

- 일본이 추구해 온 수직통합 모델의 한계와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대응 부족

3. 기업을 둘러싼 비즈니스 인프라 문제

- 높은 법인세율, 인프라 경쟁력, 화물 수송, 인재 경쟁력 면에서 일본 의 투자매력도가 전체적으로 하락

ㅇ 향후 일본은 무엇으로 먹고, 고용을 확대시켜 나가야 할 것인가

- 기존의 글로벌 산업이외의 해외 진출을 확대
- 신흥국시장에서 니즈가 높은 ①인프라, ②衣食住와 문화상품, ③볼륨 존을 집중적으로 공략
- 환경·에너지, 출생률 감소/고령화 비즈니스 등 사회적 과제와 연계된 사업
- * 출처: 경제산업성 HP, http://www.meti.go.jp/committee/materials2/data/g100225aj.html

【일본관련 주요 보고서】

- □ 『환경·건강분야에서 중소기업의 역할~신 성장전략과 간사이』 긴키경산국, 3월9일
 - 간사이지역은 환경·건강분야의 대기업, 대학·연구기관, 독자적인 기술을 확보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집적지. 간사이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환경·건강분야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중소기업과 수요 대기업과 연계가 필요
- □ 『일본은 왜 올림픽에서 메달을 따지 못 했는가』다이와종합연구소, 3월 10일
 - 한국의 동계올림픽에서 활약은 경이적. 한국은 세계에서 이길 수 없는 경기에는 예산을 사용하지 않음. 일본이 메달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예산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가능성이 없는 종목은 포기하고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 □『신흥국경제의 성장력』미쓰이물산전략연구소, 3월9일
- 신흥국의 세계경제에 대한 기여도가 높아지고 있음. 중국, 인도, 그리고 인도네시아 등 신흥국가의 고도성장이 지속된다는 보장은 없지만, 성장 잠재력 또한 급격하게 상실될 우려는 적다고 할 수 있음

2010. 3월	주 요 일 정
3월 8일(월)	주요국 중앙은행총재회의 개최(스위스)2월 경기 Watcher 조사 발표(내각부)1월 국제수지 발표(재무성)
3월 9일(화)	 1월 경기동행지수 발표(내각부) 제22차 Korea Foundation Forum 개최 강상중 도쿄대 교수 초청 강연
3월 10일(수)	○ 2월 기업물가지수 발표(일본은행)○ 1월 기계수주 발표(내각부)○ 1월 특정 서비스산업동태 통계(경산성)
3월 11일(금)	∘ 4/4분기 국내총생산(GDP) 개정치 발표(내각부) ∘ 1월 미국 무역수지 발표
3월 12일(토)	• 1월 광공업 생산지수 발표(경산성)

□ 파트너를 찾습니다

- 1. [한국의 미술품과 전통공예품]을 수입하고 싶다고 의뢰해 왔습니다.
 - ☞ 의뢰기업명 : 톱아트(일본의 미술품, 공예품 통신판매사)
- 2. [(자동차용)사출성형금형]을 수탁생산해줄 한국기업을 찾고 있습니다.
 - ☞ 의뢰기업명 : 일본 기타큐슈시 소재 '미시마코산'
 - 한국기업의 조건 : 현대, 기아 등 주요 자동차 메이커와의 거래관계 에 있을 것
- 3. 일본의 투자전문기관에서 투자대상이 되는 한국내 [바이오 관련 벤처기 업]을 찾고 있습니다.
- * 관심있으신 회원은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일본비즈니스협력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담당: 전재용 선임연구원 / Tel: 02-3014-9845 / jyjun@kjc.or.kr)

♣ 時事用語 ♣

□ 포퓰리즘

'대중주의', '인기영합주의' 등으로 번역됨. 1890년 미국의 양대 정당인 공화당, 민주당에 대항하기 위해 생겨난 인민당(populist party)이 농민과 노조의 지지 를 얻기 위해서 경제적 합리성을 도외시한 정책을 표방한 것에서 연유됨. 일 반적으로는 대중을 동원하고 이들의 직접 참여에 의한 정치체제의 운용을 말 함. 선거에서 표를 의식해 경제논리에 반해 선심성 정책을 펴는 것도 포퓰리 즘의 대표적인 경우임.

□ 안드로이드(Android)

PC 운영체지인 '윈도우'처럼 스마트폰에서 프로그램을 실행하도록 하는 구글이 만든 모바일 전용 운영체제. 애플 아이폰 콘텐츠 장터인 '앱스토어'와 같이 '안드로이드 마켓'이 있어서 누구나 원하는 게임, 뉴스, 음악 등 콘텐츠를 내려 받을 수 있으며 구글 검색도 초기화면에서 쉽게 할 수 있음. 특히 애플이폐쇄적으로 운영중인 아이폰 체제와 달리 운영체제를 공개하고 있어 휴대폰제조업체는 물론 SK텔레콤 등 이동통신사도 채택할 수 있는 것이 특징임

[출처 : Qeekly, 주일후쿠오카총영사관]

제42회 한일경제인회의

THE 42ND KOREA-JAPAN BUSINESS CONFERENCE

2010. 4. 14 ~ 17 OKAYAMA, JAPAN

사단법인 한일경제협회(회장: 조석래)는 한일 양국 간의 경제협력 관계를 새롭게 정립해 나가기 위해 제42회 한일경제인회의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인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합니다.

기간 : 2010년 4월 14일(수)~17일(토) 장소 : 일본 오카야마시(岡山市) 호텔 그란비아 오카야마

4월 15일(목)		4월 16일(금)	
15:00~15:05 개 회	개회(일한경제협회 : 예방활동 보고 등)		「동아시아 경제연대(공동체)와 한일관계」
15:05~15:15 개 회 사	■ 조석래 한일경제협회 회장 ● 이이지마 히데타네(飯島英胤) 일한경제협회 회장	09:00~11:35 제 1세션	- 사회 : 후카기와 유키코(深川由起子) 와세다대학 정치경제학술원 교수 ■ 한국측 발표자 : 경제연구기관 (미정) 이수철 삼성물산(주) 자문역
15:15~15:25 내빈축사	■ 권철현 주일대한민국특명전권대사 (미정) ● 이시이 마사히로(石井正弘) 오카야마현지사(岡山縣知事)		● 일본측 발표자 : 카와이 마사히로(河合 正弘) 아시아개발은행연구소 소장 우에노 켄지(上野 健次) 도레이(주)이사국제부문장
15:45~16:45	11:40~13:20	오찬회 및 공동성명(안) 심의회	
기조연설	● 고미야마 히로시(小宮山 宏) 미츠비시종합연구소 이사장 /동경대학총장고문(전 총장)		『금후의 환경경영과 그린 비즈니스의 전개와 전망』 - 사회 : 오코노기 마사오(小此木政夫) 게이오기주쿠대학 법학부 교수
16:45~18:20 보고·제안	◆ 한일신산업무역회의 보고·제안(인재교류/부품소재·무역투자) ■ 오영호 한국무역협회 상근부회장 ● 아소 유타카(麻生 泰) 아소라파쥬시멘트(주) 사장 ◆ 협회활동의 일반경과보고	13:30~15:40 제 2세션	■ 한국측 발표자 : 유연철 외교통상부 녹색환경협력관 최태일 한국전력공사 스마트그리드추진실 처장 ● 일본측 발표자 : 아다치 에이이치로(足達英一郎) (주)일본종합연구소 創發戰略 센터/ESG리서치센터장
19:00~20:30 리셉션	환영리셉션 (양국 공동 주최)	16:00~16:20	익키 오사무(一木 修)(주)자원종합시스템 대표이사사장 공동성명 채택, 폐회인사 / 공동기자회견

4월 17일(토) OPTION PROGRAM

■ 참가대상 : 기업(단체)의 최고 경영자 및 임원 및 각계 전문가

■ 문의: (사)한일경제협회 사무국: 02-3014-9877 ■ 참가안내 및 신청서는 www.kie.or.kr에서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3월 19일 마감)







